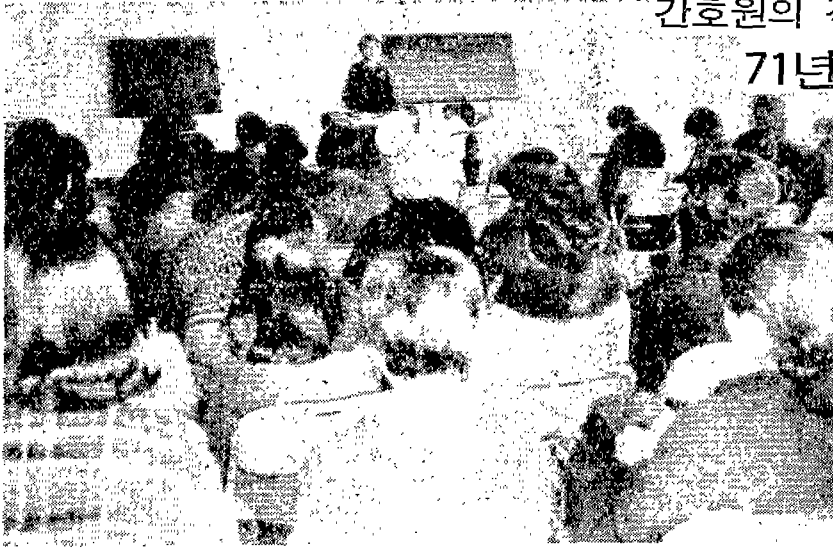


간호원의 직업윤리 71년도의 좌표



1971년 1월15일 서울시지부 주회 간호원과 직업윤리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이영복 교수

환자에게나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일만 해 주어야 된다는 기대 속에서 살고 일하며 때로는 지나친 정신적 또는 인격적인 부담감을 감수하여야 되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직업윤리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倫理”라는 單語는 되도록 되풀이 하지 않고 각도를 달리하여 이야기 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기에는 간호원들의 학술적인 발달, 직권의 신장, 경제적인 향상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최종 목적인 국민 보건과 사회 봉사를 위한다는 그 모든 본래의 의도와 목표를 향하여 우리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路程에는 장애물도 많아지고 길도 여려갈래가 되어서 확실한 標識을 바라보고 힘찬 勢力으로 발걸음을 마추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셋길로, 혹은 더 험한 길로 밀려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제안한다면 1971년도의 標語트 다음 세가지를 명심했으면 어떨지요?

1. 대중의 소리에 敏感하게 귀를 기울이자.
2. 환자는 간호원을 더 많이 보기 원한다.
3. 간호원의 책임을 다 잘하고 대우도 더 잘 받자.

1. 나를 알기 위하여서는 나들 포함한 전체를 알아야 되며 또한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나에게 대한 생각과 傾向을 잘 알아야 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흡수하고 그리고 늘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겠습니다. 대체로 대중은 현명합니다. 또한 대중의 보이지 않는 意思와 분위기는 때로는 무서운 세력으로 밀려 닥치기도 합니다. 또한 대체로 대중은 중국적으로 正義를 관별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 같으나 이것은 日常의 적은 우리들의 책임 수행을 충실한 대중의 評價와 反應이 쌓이고 합하면 언젠가 보르게 구체적인 심각성을 물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간호를 직접 받는 환자들, 保健指導를 받는 시민들, 그들의 가족과 친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의료 보전 요원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의 소리,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소리들을 골고루 다 意義있게 듣고 생각하여야 되겠습니다. 매일 듣는 소리라도 소화가 필요합니다.

2. 환자의 공통적인 요구는 간호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간호원으로 부터 얼마만한 도움과 간호를 받느냐는 제 2차적인 문제이나 낯선 사람으로서의 관계로 시작되는 간호원과 환자는 일단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환자가 간호원을 만나러 간호원실로 나오기를 기대 하겠습니까? 보호자가 代理役으로 간호원을 만남으로 해결이 늘 되겠습니까? 간호원을 보기 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침대와 침대를 일일히 가서 만나는 일이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또한 간호의 첫 단계 책임 수행인 줄 압니다. 간호원을 보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고달픈 눈, 기대에 찬 눈을 直視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와 빠른 걸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여야 하겠습니다.

3. 간호원의 책임을 다 하는 문제와 대우를 잘 받도록 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별적인 모든 간호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專門職의 法的權限이나 業務限界나 處遇문제등 公的이고 制度的인 문제를 改善하고 刷新하려 할 때는 언제나 많은 數의 支持를 받을 만한 對象에 앞서서 적은 數의 支持를 받을 수 없는 지각 없는 무리들의 작용과 영향이 더 큽니다. 이것은 우리들 實生活에서 늘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간호분야를 살펴 볼 때 과연 支持의 대상으로 대중의 응원을 받기에 적당한 數의 비례가 더 커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혹 불행하게도 과거보다 더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호원의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책임을 과연 다 하는지 혹은 하지 못하는지는 간호원 자신이 먼저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잘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찾아서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과거 수년간 간호원에 대한 관심과 열려와 사건이 매스컴을 통하여 行政府에서, 일반 사회에서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큰 副作用도 없지 않은데 그중의 하나는 “간호원의 하는 일이 즉 診療補助인 듯 진료보조의 比重이 지나치게 강조 된 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과와 원인은 단순하지 않으나 이러한 잘 못된 인상이나 견해를 없이 하고 참으로 素的인 看護業務와 機能을 名實共히 해 나가고 진료보조는 간호기능의 일부라는 自他間의 正當한 견해를 도모 찾기 위하여는 간호원 자신들의 각성과 노력이 急先務입니다.

참고삼아 實務면의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하고 우리 자신의 主見을 공고하게 다잡고 지나갑시다. 간호업무를 大別해서 전문가들은 다음 7개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편리상 사무상 간호분야 안에서 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간호원의 法的인 책임, 또한 醫師, 藥師, 事務員, 教育者등 醫療保健 전체 분야 내에서의 限界와 區別을 위한 職業的인 또한 法的인 책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다음 7個項 책임중에 마지막 項目인 진료보조외에 6개項目은 전부 간호원의 單獨責任아래 이루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 간호원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되는 일들

1. 환자를 감독(Supervision)하는 책임.
2. 증상과 반응에 대한 관찰과 보고.

3. 일체의 기록에 관한 일.

4. 非專門직원의 감독과 지도(특히 간호보조원)

5. 간호원이 단독으로 하는 간호 시술(Procedure)

6. 보건의교육과 환자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 일체.

◇ 유일한 의사의 보조적인 행위

7. 약물투여 기타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보조행위

일차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간호보조원에게 다 시켜 놓고, 진료보조만 겨우 해 놓고는 두 손잡고 할 일을 바로 찾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요?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전번 김영자 사건 이래 “의사처방에 의한 진료보조(투약, 주사등) 행위는 간호원이 할 수 있으며, 또한 시행상 과오가 없는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처방자에게 귀속된다”고 확실히 되었읍니다. 또한 같은 이론으로 간호원(전문 간호원인 우리들)이 전문 간호행위를 간호보조원에게 시켰을 때 그 권한 만을 이양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전문 간호원이 져야 될을 명심해야 겠읍니다.

우리들의 책임 수행이란 물론 법적인 책임 문제뿐은 아니고 그 보다 앞서 道義的인 책임과 職業的인 책임 또한 行政的인 책임 등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환자의 평안과 福祉를 위하여서 나의 노력과 피로움과 責任感에 쫓기는 마음이 아쉬운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의 책임을 다 잘 하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들은 우리의 權利와 待遇도 주장하여야 겠읍니다. 국제 간호 도덕 법규(International code of nursing ethics) 제9조에 “간호원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의 일부인 정당한 人權的 대우와 물질적 보수를 받아야 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두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우리는 被看護者의 安寧과 福祉를 끝까지 드한 나의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다름아닌 간호정신이라는 점을 살려서 환자에게는 불편과 손해를 주지 않는 혹은 불가피한 경우 最小限으로 주려는 最大限의 노력과 부실이 있어야 겠읍니다.

둘째는 우리 社會에서는 좋은 目的이라도 그 목적 달성의 방법을 중요시 합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人道主義, 民主主義, 간호정신등 우리들이 指向하는 방향과는 어긋나는 것인가 합니다.

시간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으나 우리는 우리들이 살고 일하는 이 社會에서 내가 할일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좀 비약해서 社會正義에 예민하여야 겠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 자신의 主見을 공고히 하고 적어도 우리 分野에서 만은 社會正義를 웨칠 수 있어야 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간호원 개인의 발전과 권익과 幸福은 간호원의 職業的 團體의 組織的인 활동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會員과 그 회원이 속한 단체의 발전이란 언제나 環境生理의 原理아래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우리는 조직적으로 동치고 단결하여야 겠읍니다. 우리 앞에는 아무리 力量있는 개인이라도 하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